

## 학회소식

### 1. 정례학술발표회

#### 1) 제96회 정례학술발표회

일시 : 2011년 5월 14일(토) 오후 2시 ~6시

장소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성호관 105호)

- 제1주제           헌법 제120조 제1항 천연자원 규정의 기원  
발표자 : 전종익(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 제2주제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발표자 : 김동훈(헌법재판소 연구관)
- 제3주제           한말 산송에 관한 연구  
발표자 : 김백경(서울대학교 박사과정)
- 사료강독  
발표자: 성중모(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수익권과 과실수취권

#### 2) 제97회 정례학술발표회

일시 : 2011년 6월 17일(금) 오후 2시 ~ 6시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6층(서암홀)

- 제1주제 : ‘법과 경제 위기’ 삼부작에 있어서의 역사적 방법론(Historical Approach in Trilogy Of “Law & Economic Order”)

발표자 : 김 철(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제2주제 : 朝鮮朝 法典·法書의 번역 현황과 과제

발표자 : 정공식(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토 론 : 홍순민(명지대학교 교수), 조운선(청주대학교 교수)

- 사료강독

손경찬(서울대학교 박사과정): 구한말 민사판결문-1907년 이중매매사례

### 3) 제98회 정례학술발표회

일시 : 2011년 9월 17일(토) 오후 2시~6시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회의실(17동 517호)

주제 : 법사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

- 제1주제 로마법 교육의 현황과 과제

발표자 : 최 병 조(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 제2발표 서양법제사 교육의 현황과 과제

발표자 : 서 을 오(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3발표 한국 전통법 교육의 현황과 과제

발표자 : 심 희 기(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4발표 일본법제사 교육의 현황과 과제

발표자 : 김 창 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3. 회원동정

1) 최병조 회장이 2011년 1월 21일 독일 괴팅겐 학술원(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Göttingen) 문과 부문(Philologisch-historische Klasse)의 通信회원

(korrespondierender Mitglied)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교신회원은 모두 6명(이과 4명, 문과 2명[신학과 법학])인데, 최병조 교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독일대학 교수입니다. 괴팅겐 학술원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751년 설립된 괴팅겐 학술원은 독일의 여덟 개 학술원 중 두 번째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데, 독일 학술원의 토지관할 원칙에 따라 괴팅겐과 북독일 지역 거주자를 정회원(각 부문별로 최대 40명)으로, 독일의 기타 지역 거주자와 외국인은 교신회원(각 부문별로 최대 100명)으로 선출한다. 회원의 선출은 최소 3인의 정회원의 이유부 서면에 의한 신청과 해당 문과 또는 이과 부문의 제청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부문의 제청은 제청에 앞선 회의에서 투표권 있는 재석자의 3/4 이상의 다수가 찬성해야만 한다. 한 부문의 제청은 제청투표가 이루어지기 전 적시에 다른 부문에 통지해야 한다. 선출투표는 (만 70세가 되거나 거주를 북독일 지역 밖으로 옮김으로써) 현역을 면한 자를 제외한 모든 정회원의 최소 반이 참석한 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이루어지며, 투표권 있는 재석자의 3/4 다수결을 요한다. 현역이 아닌 정회원은 모든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최대 회원수의 계산에서는 제외된다. 교신회원은 만 75세가 되면 최대회원수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교신회원과 명예회원은 투표권이 없다.

현재 헌법 전공의 Christian Starck 교수(1982년부터 정회원)가 원장으로 있는 동 학술원 홈페이지 회원명단에 의하면 법학 전공의 정회원은 모두 11명이고, 10명의 교신회원은 모두 독일과 유럽의 교수들이다(독일 4명, 네덜란드 2명,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각 1명). 최병조 교수의 박사지도교수인 Okko Behrends 교수(1982년부터), 본교 박정훈 교수의 박사지도교수인 Ralf Dreier 교수(1980년부터), 김도균 교수의 박사지도교수인 Robert Alexy 교수(2002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Reinhard Zimmermann 교수(2003년부터) 등이 정회원이고, 송석운 교수의 박사지도교수인 Gerhard Dilcher 교수(2007년부터) 등이 교신회원이다. 동양인으로서 회원이 되기는 최병조 교수가 처음이다. 새 교신회원 명단은 동 학술원의 소식지 <Akademie heute> Ausgabe 1/2011, p.2에 실렸다.

그리고 독일의 학술원 명단(설립연도순)은 다음과 같은데, 이들은 독일학술원연합회(Union der Deutschen Akademien der Wissenschaften)를 구성하여 학술활동을 상호 조율한다.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학술원(Berlin-Brandenburg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1992/1700), 본거지: 베를린 및 포츠담(Berlin und Potsdam)

- 괴팅겐 학술원(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Göttingen) (1751)

- 바이에른 학술원(Bayer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1759), 본거지: 뮌헨(München)

- 라이프치히 작센 학술원(Sächs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Leipzig) (1846)

- 하이델베르크 학술원(Heidelberg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1909)

- 마인츠 학술문예원(Akademie der Wissenschaften und der Literatur, Mainz) (1949)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학술예술원(Nordrhein-Westfäl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und der Künste) (1970), 본거지: 뒤셀도르프(Düsseldorf)

- 함부르크 학술원(Akademie der Wissenschaften in Hamburg) (2004)

괴팅겐 학술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uni-goettingen.de/de/10150.html> 참조

독일학술원연합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akademienunion.de/> 참조.

#### 4. 운영위원회

회장	최병조(서울대)
부회장	심희기(연세대, 편집위원장)
감사	윤대성(장원대 명예교수), 이은영(한국외국어대)
총무	정공식(서울대), 조지만(아주대)
연구	한상돈(아주대), 정병호(서울시립대), 문준영(부산대)
정보	서울오(이화여대)
섭외	김정록(경북대)
편집위원	임대희(경북대), 이재룡(충북대), 이영록(조선대), 임상혁(숭실대), 홍기원(서울시립대), 정일영(서울대 박사과정, 편집간사)

#### 5. 학회비

비정규직 연구자(대학원생 포함) : 3만원

정규직 : 5만원

기관 : 7만원

입금계좌 : 농협: 351-0047-0326-53(예금주: 한국법사학회)

농협: 079-02-902840(예금주: 정공식, 법사학회)